

#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 러시아연방

Russian Federation

2019년 11월 12일 | 선임연구원 조영관

- 국가개황
- 경제동향
- 경제구조 및 정책
- 정치·사회동향
- 국제신인도
- 종합의견



## 일반개황

<b>면적</b> 17,098천 km <sup>2</sup> 	<b>인구</b> 1억 4,673만 명 (2019 기준) 	<b>정치체제</b> 대통령중심제 	<b>대외정책</b> 동북아시아 및 신흥국들과의 협력추진 
<b>GDP</b> 1.64조 달러 (2019) 	<b>1인당GDP</b> 11,163달러 (2019) 	<b>통화단위</b> Russian Ruble(RUB) 	<b>환율(U\$기준)</b> 65.9 (2019) 

- 러시아는 세계 최대 면적의 영토를 보유한 국가이며, 2018년 기준으로 세계 3위의 원유생산국, 세계 2위의 천연가스 생산국으로 세계 에너지 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푸틴 대통령이 2018년 3월의 대통령 선거에서 76.7%의 높은 득표율로 당선되어 2024년까지 대통령 직을 수행하고 있으나, 2018년 연금개혁과 2019년 지방의회 선거 과정에서 대규모 반정부 집회가 발생하며 푸틴 대통령의 지지율이 크게 하락하였음.
- 2015~16년 세계경기 침체와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로 경기가 침체되었고, 2017년 이후에는 세계경기 회복에 따른 유가상승의 영향으로 경제가 회복되었으나, 2019년에는 다시 세계경기침체와 유가하락의 영향으로 경기가 둔화된 것으로 평가됨.
- 서방의 대러 제재 지속으로 2014년 이후 악화된 미국, EU와의 관계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반면, 에너지 부문에서 긴밀히 협력해온 중국과는 냉전 이후 최대 규모의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등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였으며, 비서방 국가들인 터키 및 인도, 베트남 등과 긴밀한 경제·외교·군사 협력을 추진하고 있음.

## 우리나라와의 관계

<b>국교수립</b>	1990. 9. 30 구소련과 국교 수립, 1991. 10. 12 러시아가 승계 (북한과는 1948. 10. 12 수교)
<b>주요협정</b>	무역협정('90), 원자력협력협정('99), 관광협정('01), 에너지분야협력협정('02), 항공협정('03), 우주기술협력협정, 가스산업협정('06), 비자협정('10), 해상운송협정('11), 근로활동협정('12), 사증면제협정('14)

## 교역규모

(단위 : 천달러)

구분	2016	2017	2018	주요품목
수 출	4,768,751	6,906,618	7,320,899	합성수지, 차량, 송신기기, 의류,
수 입	8,640,613	12,039,530	17,504,050	석유, 알루미늄괴, 철강, 농축우라늄

해외직접투자현황(2019.6월 말 누계, 총투자기준) 599건, 2,738,212천 달러

## 국내경제

(단위: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sup>f</sup>
경제성장률	-2.3	0.3	1.6	2.3	1.1
소비자물가상승률	15.5	7.0	3.7	2.9	4.7
재정수지/GDP	-3.4	-3.7	-1.5	2.9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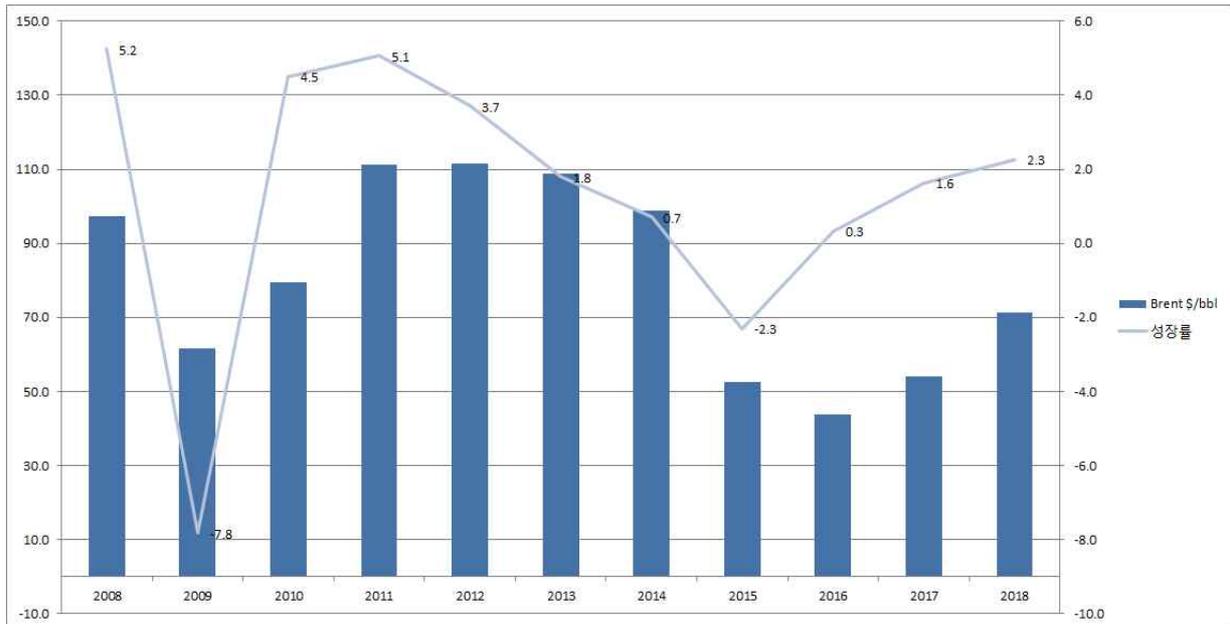
자료: IMF, EIU

###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국제유가 상승으로 플러스 경제성장률 기록

- 2018년 국제유가 상승 추세 지속에 따라 러시아 경제는 2017년 1.5%에 이어 2018년에도 2.3%의 플러스 성장을 기록하였음.
- 고정자본투자증가율은 2017년 4.8%, 2018년 4.3%를 기록하며 경제성장에 기여해 왔으며, 소매거래량 증가율은 2017년 1.3%, 2018년 2.8%로 상승 추세를 보이며 경기회복에 기여하였음.

<그림 1> 국제유가와 러시아 경제성장률 변동

(단위: 달러/배럴 당, %)



자료: BP, WE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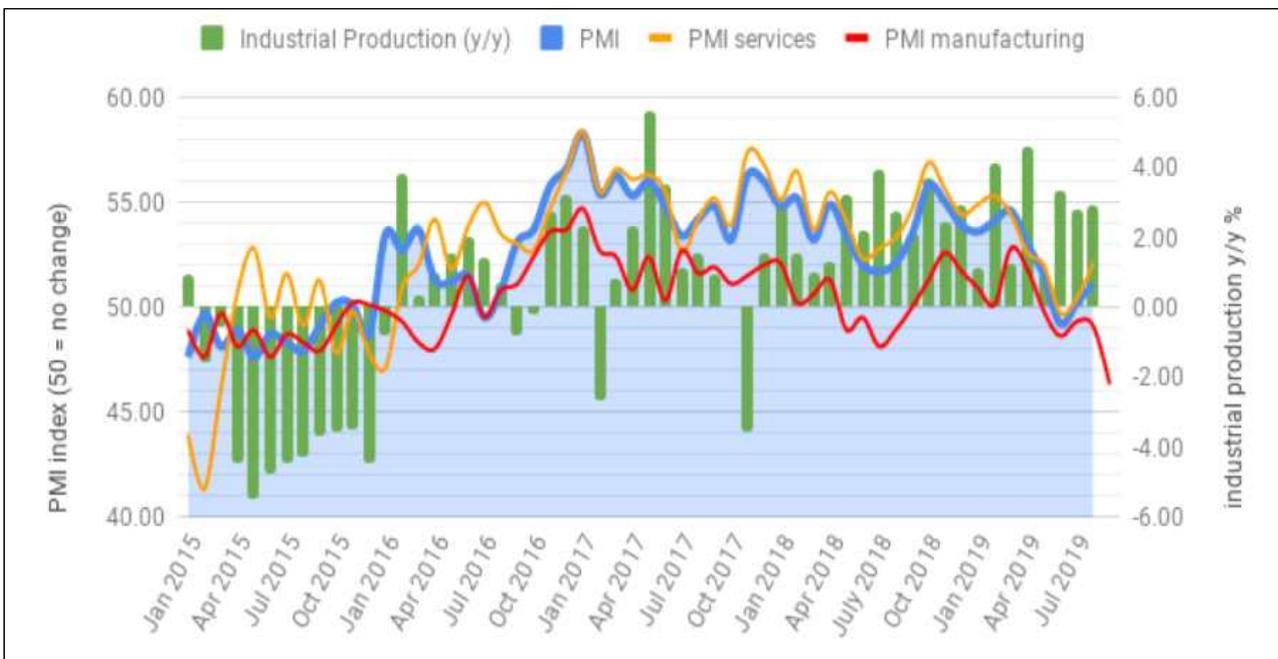
### 2019년 유가 하락으로 경제성장률 둔화 전망

- 2019년에는 국제유가 하락 추세에 따른 투자 및 내수 둔화 등의 요인으로 성장률이 1.1%로 둔화할 것으로 전망됨.

\* EIA의 2019년 10월 전망에 따르면, 국제유가는 2018년 배럴 당 71.19달러에서 2019년에는 배럴 당 63.37달러로 하락 전망 (브렌트유 기준)

- 고정자본투자율은 2019년 1/4분기에는 0.5%, 2/4분기에는 0.6%로 다소 둔화되었으며, 소매거래량 증가율도 2019년 1/4분기에는 1.9%, 2/4분기에는 1.6%로 2018년에 비해 둔화됨.
- 또한 아래 <그림 2>에서와 같이 2019년에는 제조업 및 서비스업 구매자 관리지수 등도 하락하고 있음.

<그림 2> 러시아의 산업생산증가율, 제조업 및 서비스업 구매자 관리지수



자료: IH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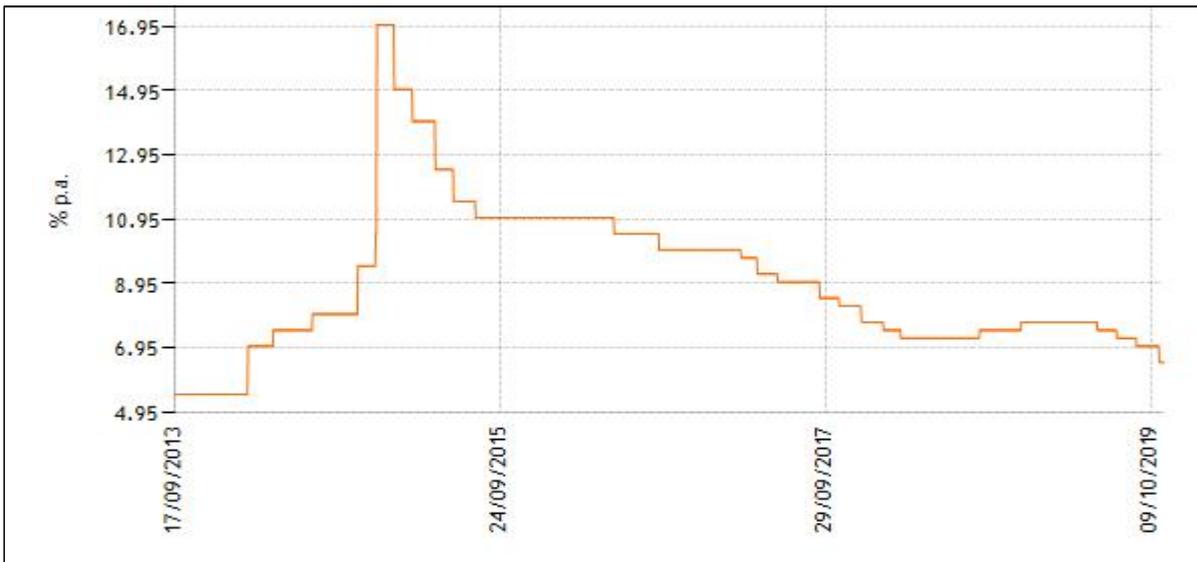
### 재정수지는 2018년 GDP 대비 2.9% 흑자로 전환되었으며, 2019년에는 1.0% 흑자 전망

- 저유가로 인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하였으나, 2017년에는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감소하였으며, 2018년에는 흑자로 전환됨.
- GDP 대비 재정수지 비중은 2015년과 2016년의 -3%대에서 2017년 -1.5%로 개선되었으며, 2018년에는 2.9%의 흑자로 전환되었고, 2019년에도 0.9%의 흑자가 전망됨.
- 2018년 이후의 재정수지 흑자 전환은 2016년 12월 세계 산유국들의 원유감산 합의와 세계경제 회복세, 중동 정세 불안정 등으로 유가가 상승함에 따라 원유 수출기업들로부터의 세입이 증가한 데 따른 것임.

## 2017년 이후 환율안정에 따라 소비자물가상승률 안정 추세

- 러시아 루블화 환율의 안정으로 수입물가가 하락하면서 소비자물가상승률도 하락함.
- 2015~16년 루블화 환율의 큰 폭 상승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으로 연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015년 15.5%, 2016년 7.0%를 기록했으나 2017년에는 환율 안정으로 3.7%로 크게 둔화하였으며, 2018년에는 2.9%로 더욱 억제되었음.
- 2019년에는 서방의 경제제재 지속과 부가가치세율 인상(18%→20%)에 따른 일부 상품의 가격 인상으로 인해 전년도에 비해 다소 상승한 4.7%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전망됨.
- 2017년 이후 소비자물가상승률 하락에 따라 중앙은행은 경기부양을 위해 점진적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있음.
- 중앙은행은 2017년에 여섯 차례 기준금리를 인하하였고, 2018년 상반기에도 두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인하하였으나(7.75%→7.5%(2월)→7.25%(3월)), 2018년 9월과 12월에는 대러 제재로 인한 환율상승과 인플레이션을 상승 우려에 따라 7.5%, 7.75%로 각각 인상하였음.
- 2019년 6월 이후에는 미국과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금리인하 움직임으로 2019년 6월, 7월, 9월, 10월 네 차례에 걸쳐 6.5%까지 금리를 인하하였음.

<그림 3> 러시아 기준금리 변동(2013년 9월 ~ 2019년 10월)



자료: Central Bank of Russia

## 대러 제재의 영향으로 외국인투자 유입액은 감소

- 미국과 EU의 대러 제재 지속 및 확대로 인해 외국인투자 유입액이 감소하고 있음.
-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은 2016년 372억 달러에서 2017년 260억 달러, 2018년 133억 달러로 축소되었음.
- 서방의 대러 제재에 따라 외국 기업들은 러시아 기업과의 금융 거래나 에너지, 방위산업 및 석유개발 등의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제한받고 있음.

## 대외거래

###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sup>f</sup>
경상수지	67,777	24,469	32,430	113,455	121,659
경상수지/GDP	5.0	1.9	2.1	6.9	7.4
상품수지	148,398	90,215	114,719	194,429	198,207
상품수출	341,419	281,709	353,102	443,130	448,336
상품수입	193,021	191,494	238,384	248,701	250,129
외환보유액	309,387	308,031	346,507	371,733	464,688
총외채	518,489	511,752	518,800	454,000	456,300
총외채잔액/GDP	38.2	40.0	32.8	27.4	27.9
D.S.R.	21.8	17.3	13.3	17.5	14.3

자료: IMF, EIU

### 2017~18년 국제유가 안정에 따른 에너지 수출 증가에 따라 교역규모 증가 추세

- 세계경기 침체와 유가 하락에 따라 2015~16년 교역액이 급격히 감소하였으나, 2017년 이후에는 유가 상승으로 수출이 크게 늘어났으며,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중도 증가함.
- 2017년의 전년대비 수출액은 25.3%, 수입액은 24.5%가 증가하였으며, 2018년에도 전년 대비 수출액은 25.5%, 수입액은 4.3% 증가하였음.
- 수출 증가에 따라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중은 2016년 1.9%, 2017년 2.3%에서 2018년에는 6.9%로 상승하였으며, 2019년에도 7.4%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표 1> 러시아 수출과 원유수출 규모(2009~18년)

(단위: 백만 달러, %)

연도	전체 수출	원유 수출	전체 수출 대비 원유 수출 비중
2009	297,155	100,593.2	33.9
2010	392,674	135,799.3	34.6
2011	515,409	181,812.4	35.3
2012	527,434	180,929.7	34.3
2013	521,835	173,668.3	33.3
2014	496,806	153,895.5	31.0
2015	341,419	89,587.7	26.2
2016	281,709	73,712.6	26.2
2017	353,102	93,377.2	26.4
2018	443,130	129,201.4	29.2

자료: 러시아 통계청

## 외채상환능력

### 경상수지 흑자 규모 증대로 외환보유액 증가 추세

- 2017년 이후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경상수지 흑자 규모 증대로 외환보유액이 증가 추세에 있음.
- 러시아 중앙은행 자료에 따르면 외환보유액은 2019년 7월 말 기준으로 5,198억 달러로 2018년 말의 4,685억 달러에 비해 약 11% 증가하였음.
- 러시아 정부는 서방의 제재 이후 안전자산인 금의 보유량을 늘리고 있으며, 2019년 7월 말 기준 러시아의 금 보유량(미달러 환산)은 전체 외환보유액의 19.6%에 달하고 있음.

<그림 4> 러시아의 금 보유량의 외환보유액 대비 비중

(단위: %)



자료: Central bank of Russia

### GDP 대비 총외채잔액 및 총수출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은 안정적인 수준 유지

-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은 2018년 27.4%를 기록한 데 이어, 2019년에도 27.9%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며, 총수출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도 2018년 81.0%, 2019년 78.3%로 안정적으로 유지될 전망이다.
- D.S.R은 2018년 14.4%에서 2019년에는 11.4%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 대규모 국부펀드(National Wealth Fund) 운용

- 러시아 정부는 에너지 수출소득을 통해 형성된 국부펀드를 운용하고 있음.
- 정부의 재정적자 보전, 연금기금 균형을 목적으로 하는 국부펀드 규모는 2019년 7월 말 기준 GDP의 7.2%인 1,241억 달러에 달하며, 향후 규정에 따라 중앙은행은 GDP의 7%를 상회하는 금액을 산업이나 인프라 프로젝트 등에 투자 할 수 있음.
- 국부펀드와 함께 정부재정 지원, 인플레이션 완화 등을 목적으로 하는 예비기금(Reserve Fund)이 운영되었으나, 경기침체기의 재정지원이 증가함에 따라 2017년 말 기금이 소진되어 더 이상 운용되지 않음.

## 구조적취약성

### 원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 부문에 편중된 산업구조

- 중장기적으로 러시아 경제의 생산성을 높이고 성장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부문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경제구조를 개혁할 필요가 있음.
- 러시아는 에너지 의존적 경제구조에 따라 국제유가의 영향으로 주요 경제지표의 변동성이 높으며,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유지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음.
  - \* 2014~15년 국제유가 하락으로 마이너스 경제성장률 기록한 후, 2016년 이후 국제유가 상승으로 플러스 경제성장률로 전환되었으며, 2019년에는 다시 유가하락으로 경기가 침체되고 있음.
- 지난 10여 년 동안 전체 수출규모에서 차지하는 원유의 수출비중은 29~36%에 달하고 있으므로,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에너지 수출의 비중을 줄이고 다른 산업에서의 수출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음.

### 금융 부문의 경쟁력이 취약하며 국영은행 및 일부 은행의 높은 시장점유율 지속

- 2017년 최대 민간은행의 부도 위험에 대응하여 중앙은행이 56억 달러에 달하는 구제금융을 실시하였으나, 2008~09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타격을 받은 금융권은 여전히 취약한 상황인 것으로 평가됨.
- 2019년 4월 기준 전체 은행 자산의 62%를 정부 소유 은행들이 보유하고 있으며, 5대 주요 은행들이 전체 은행 수익의 57%를 차지하고 있음.

## 성장잠재력

### 풍부한 에너지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석유·천연가스·석탄의 세계적인 생산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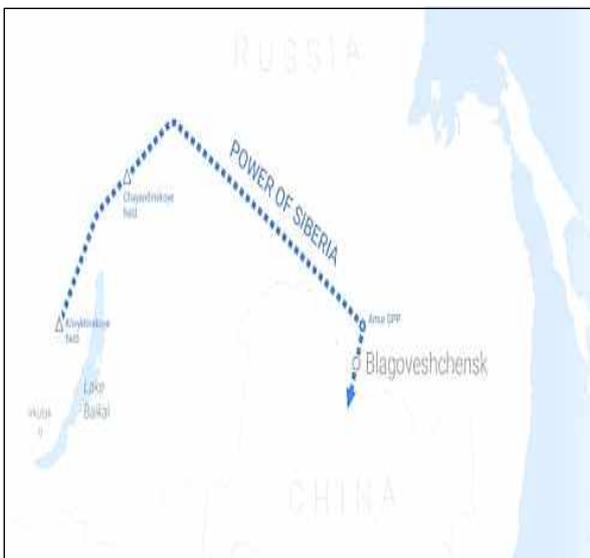
- BP의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러시아는 전 세계 원유 매장량의 6.1% 및 생산량의 12.1%를 점유하였으며, 천연가스는 전 세계 매장량의 19.8% 및 생산량의 17.3%를 점유하였음.
- 2018년 러시아의 원유 매장량은 1,062억 배럴(145억 톤)로 베네수엘라, 사우디아라비아, 캐나다, 이란, 이라크 다음의 세계 6위 규모이며, 생산에서는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다음으로 많은 일일평균 1,144만 배럴을 생산하는 세계 주요 에너지 생산국임.
- 천연가스 매장량은 38.9조 m<sup>3</sup>로 세계 1위, 생산량은 6,695억 m<sup>3</sup>로 미국(8,318억 m<sup>3</sup>)에 이어 세계 2위를 기록하고 있음.
- 러시아는 주로 유럽에 석유와 가스를 공급하였으나 최근에는 동북아시아 지역에 대한 석유, 가스 공급량을 늘리고 있으며, 북극해 등에 다수의 미개발 유전, 가스전을 보유하고 있어 향후 생산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됨.
- 또한 BP 자료에 따르면, 러시아의 석탄 매장량은 전 세계의 15.2%이며, 생산량은 전 세계의 5.6%에 달함.
- 석탄 매장량은 1,603억 톤으로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생산량은 2억 202만 톤으로 중국,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인도네시아에 이어 세계 6위 규모임.

## 정책성과

### 야말 LNG-1, 2 생산과 '노드 스트림-2' 및 '시베리아의 힘' 가스관 건설

- 시베리아 북부 지역의 가스전이 위치한 야말 반도에서 2017년 12월부터 야말 LNG 제1기가 가동을 개시한 이후 2018년부터 2기, 3기가 순조롭게 가동되고 있으며, 2019년 말 4기가 가동될 예정임.
- 야말 반도의 LNG 생산은 사할린에 이어 러시아에서 두 번째의 LNG 생산이며, 전체 생산규모는 연 1,740만 톤임. 향후 야말 LNG-2 프로젝트를 통해서도 LNG가 생산될 계획이며, 야말 LNG-2에서는 2023년부터 연 1,800만 톤의 LNG 생산이 계획됨.
- 러시아의 동시베리아 지역에서 중국 동북부 지역으로 연결되는 '시베리아의 힘' 가스관이 12월 초 완공 될 계획임.
- 동시베리아 지역에서 극동러시아의 아무르주로 연결되는 약 3천 km에 달하는 이 가스관 건설은 2014년 양국 정부가 합의하여 그해 9월부터 건설되었으며, 극동러시아에서 지선을 통해 중국의 동북부 지역으로 연결되어 연 380억 m<sup>3</sup>의 가스를 30년 동안 공급하게 됨.
- 러시아 북서부에서 발트해 해저를 지나 유럽으로 연결되어 연 550억 m<sup>3</sup>의 가스를 수송할 수 있는 '노드 스트림(Nord Streal)-2' 가스관이 완공을 앞두고 있음.
- 러시아와 독일을 연결하는 약 1,222km에 이르는 이 가스관은 지난 2011년에 완공된 '노드 스트림-1' 가스관과 나란하게 건설되고 있으며, 미국, 우크라이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독일,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등 러시아산 가스 수입국들의 동의로 2017년부터 착공되어 2019년 11월 현재 9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음.
- 또한 흑해 해저를 통해 터키, 불가리아, 헝가리로 연결되는 '투르크 스트림' 가스관도 2020년 말에 착공 될 예정임.

<그림 5> 러시아-중국 '시베리아의 힘' 가스관



자료: 매일경제신문. 2019년 11월 6일

<그림 6> '노드 스트림-2' 가스관



자료: 중앙일보. 2019년 11월 6일

## 정책성과

### 세계은행 기업경영여건 순위 상승

- 세계은행이 평가하는 러시아의 기업경영여건은 2017년 평가대상 190개국 가운데 35위를 기록했으며, 2018년에는 31위, 2019년에는 28위로 상승하였음.
- 특히, 평가대상항목 가운데 건축 인·허가 항목이 2017년의 115위에서 2018년 48위, 2019년 26위로 크게 개선되었으며, 전력수급 항목도 2018년의 12위에서 2019년에는 7위로 개선됨.

### 모스크바 혁신기술센터 설립으로 '스타트업' 육성 추진

- 러시아 정부와 모스크바 시 당국은 모스크바 국립대학 내 테크노파크에 혁신기술센터를 설립하고 각종 세제 혜택을 지원하여 '스타트업' 육성을 추진함.
- 2022년까지 정부 예산 100억 루블(약 1.5억 달러)을 포함한 200억 루블(약 3억 달러)이 투자될 것으로 전망되며, 향후 바이오의학, 제약, 나노기술, IT기술, 로봇공학 등의 부문에 연구개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계획되고 있음.

## 정치동향

### 2018년 연금개혁과 2019년 지방의회 선거를 거치며 대통령이나 정부에 대한 지지율 하락

- 2018년 6월 이후의 연금개혁법 추진과 2019년 8월 지방의회 선거 과정에 대규모 집회가 개최됨.
- 2018년 연금개혁은 고령인구의 증가에 따른 연금 재정의 어려움에 따라 남성 60세, 여성 55세인 퇴직과 연금수령 시기를 남성은 2028년까지 65세, 여성은 2034년까지 60세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
- 2019년 지방의회 선거에서는 모스크바 시 의회 후보로 입후보한 야권 후보들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입후보 자격 제한으로 모스크바 시민들이 공정선거를 촉구하며 여러 차례에 걸쳐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였음.
- 모스크바 시 의회 선거 결과 여당인 러시아 통합당은 기존의 38석에서 12석이 줄어든 26석을 확보하는데 그쳤으며, 최대 야당인 공산당이 기존의 5석에서 8석이 증가한 13석을 확보하였고, 자유주의 성향의 '야블로코'당과 중도좌파 성향의 '정의 러시아당'이 각각 3석을 확보함.
- 러시아 주요 여론조사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이나 러시아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음.
- 레바다 센터(Levada-Center)의 푸틴 대통령의 활동에 대한 지지 여부에 대한 설문 결과, 2017년 8월의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3%가 지지, 15%가 반대한 것에 비해 2019년 8월의 조사에서는 응답자 가운데 지지가 67%, 반대가 31%를 기록하였음. 또한 정부의 활동에 대한 지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서도 2017년 8월에는 지지 50%, 반대 49%를 기록했으나, 2019년 8월에는 지지 44%, 반대 55%를 기록하였음.
- 또한 전러시아여론센터의 2019년 10월의 설문 결과, '이번 일요일 대통령 선거시' 투표 대상에 대한 설문에서 푸틴에 대해 투표하겠다는 답변은 44%에 머물러 푸틴 대통령의 그동안 대통령 선거의 득표율(2000년 52.9%, 2004년 71.3%, 2012년 63.6%, 2018년 76.69%)보다 크게 낮은 비율을 기록하고 있음.

## 사회동향

### 2019년, 실질임금상승률 및 실질가처분소득 증가 추세 둔화

- 2018년에는 임금과 실질가처분소득이 증가하였으나, 2019년에는 경기 둔화에 따라 감소함.
- 명목임금상승률은 2017년 6.7%에서 2018년에는 11.6%로 급격히 상승하였으나, 경기 둔화에 따라 2019년 1/4분기 6.5%, 2/4분기 7.7%에 그침.
- 실질가처분소득 증가율은 2017년 -0.5%에서 2018년에는 0.1%로 상승하였으나, 2019년 들어 1/4분기 -2.5%, 2/4분기 -0.2%를 기록하고 있음.

## 사회동향

<그림 7> 러시아의 소득 및 소매 판매

(단위: %)



자료: Fitch Solutions

### 2019년 7~9월에는 수차례의 반정부 시위 발생

- 2019년 9월의 모스크바 시 의회 선거를 앞두고 7월, 8월에 공정선거를 촉구하는 1~2만 명의 시민이 참여한 대규모의 반정부 시위가 모스크바 시내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발생한 바 있음.
- 시위는 주요 야권 후보들의 입후보 등록 과정에서 추천 유권자 명부의 신뢰성을 문제로 선거관리위원회가 등록을 거부함으로써 발생하였음.
- 시위로 인해 대표적인 반정부 운동가인 알렉세이 나발니는 경찰에 체포되어 30일 구류 처분을 받았으며, 수천 명의 시민이 경찰에 체포되었음. 이들 가운데 대다수는 석방되었으나, 몇 명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됨.
- 2019년 9월 말에는 7~8월 시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의 석방을 요구하는 시위가 약 2만 명의 시민이 참가한 가운데 모스크바에서 발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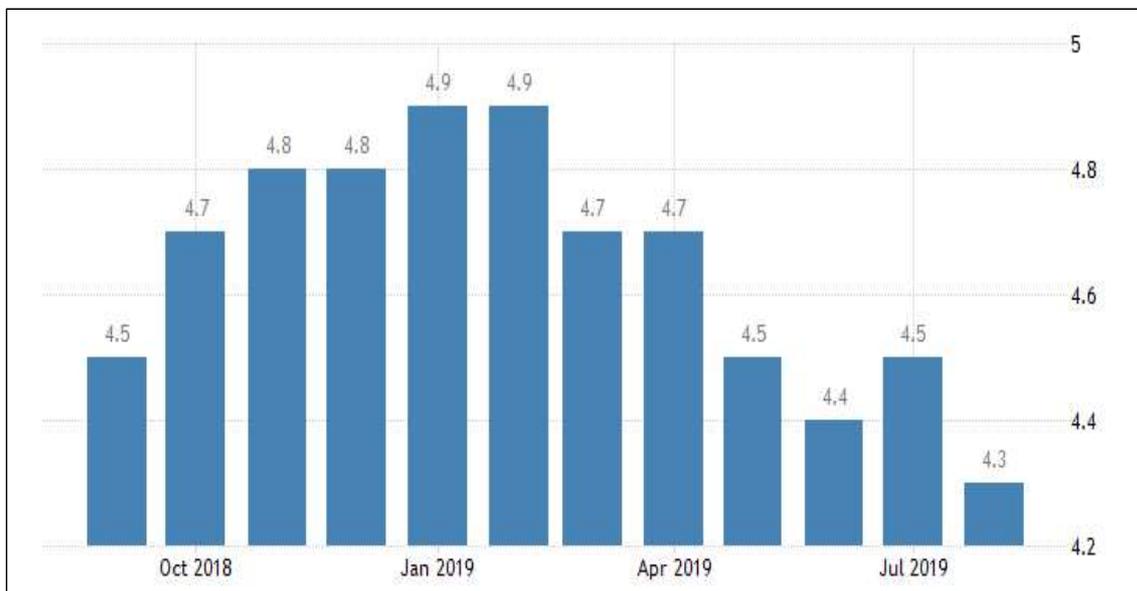
## 사회동향

### 실업률은 역대 최저 수준 기록

- 러시아의 실업률은 점차 하락하는 추세로 2017년 5.2%, 2018년 4.8%을 기록하였으며, 2019년에는 4.7%로 더욱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 러시아 통계청은 2019년 8월 실업률이 역대 최저 수준인 4.3%을 기록하였다고 발표함.

<그림 8> 러시아의 최근 실업률 추이

(단위: %)



자료: 러시아 통계청

## 국제관계

### 중국 및 터키, 인도 등 비서방 국가와의 협력 강화

- 러시아와 중국은 가스 파이프라인 건설, LNG 개발 등 에너지 분야와 항만개발, 군사 등의 부문에서도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음.
- 러시아는 시베리아에 위치한 유전에서 중국으로 송유관을 연결하여 원유를 수출하고 있으며, 중국으로 연결되는 '시베리아의 힘' 가스 파이프라인 건설공사가 2019년 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음.
- 러시아 정부가 추진하는 극동러시아 지역 자루비노항 등의 항만 개발, '프리모리예 1, 2' 등의 운송로 건설과 농업, 제조업 등의 분야에 중국 기업들이 투자를 추진하고 있음.
- 중국 기업들은 러시아의 야말 LNG 사업에 지분투자를 하고 있는데, 야말 LNG-1에는 CNPC, 실크로드 펀드가 투자하고 있으며, 야말 LNG-2 사업에는 CNPC와 CNOOC가 지분투자를 하고 있음. 양국은 북극항로를 통한 LNG 수송 루트 개발과 선박 건조 등에서도 협력을 논의하고 있음.
- 러시아와 중국은 2018년 9월 오호츠크해 등에서 30만 명의 병력이 참가하는 냉전 이후 최대 규모의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한 바 있으며, 2019년 9월에도 러시아 남부 지역에서 양국이 인도,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 타지키스탄 등과 함께 13만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연합 군사훈련을 실시하였음.
- 러시아는 서방과 갈등 관계에 있는 터키와 경제, 외교, 군사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인도와의 협력도 확대하고 있음.
- 러시아는 국영 원자력발전기업인 '로스아톰(Rosatom)'사가 터키에서 2023년 가동을 목표로 약 200억 달러 규모의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러시아제 방공 미사일 시스템인 S-400을 터키에 공급하는 등 긴밀한 협력 관계를 맺고 있음.
- 러시아와 인도는 전함, 헬리콥터, 방공 미사일 시스템인 S-400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등 군수물자를 거래하고 있으며, 인도 북부 지역에서는 양국 협력으로 러시아제 칼라시니코프 소총을 생산하고 있음.

### 중동에서의 영향력 확대

- 러시아는 최근 시리아 쿠르드족 지역 주둔 미군의 철수 이후 발생한 터키-시리아 사태에서 조정자로 등장하며, 이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음.
- 또한 푸틴 대통령이 2019년 10월 사우디아라비아, UAE를 방문하여 경제·안보 협력을 추진하였으며, 특히 미국의 중동지역 최대 우방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전략적 동반자' 선언을 하고 협력을 긴밀히 함.

### 서방 및 우크라이나와는 상호 교역 제한

- 2014년 러시아의 크림 반도 합병 사태 이후 러시아의 기업인들과 에너지, 군수, 금융 등 기업들에 대한 EU와 미국의 대러 제재는 지속되고 확대되어 왔음.
- 러시아 정부는 2018년 5월 '제재대응법' 제정을 통해 대러 제재에 참여하는 EU 회원국, 호주, 미국 등으로부터의 식료품, 농산물 수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였음.
- 분쟁 당사국인 우크라이나와의 상호 교역이 제한되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천연가스 직접 수출을 중단하였고, 우크라이나로부터의 농산물 수입도 중단됨.

## 외채상환태도

### OECD 회원국 ECA에 대해 일부 연체

- 2019년 6월 말 기준 러시아에 대한 OECD 회원국 ECA의 여신잔액은 249.07억 달러 (단기 20.70억 달러, 중장기 228.37억 달러) 이며, 이 가운데 1억 2,580만 달러가 연체되고 있음.
- 연체비율은 0.5%이며, 이 가운데 만기 1년 이하의 단기연체는 320만 달러임.

## 국제시장평가

###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OECD	4등급(2019.02)	4등급(2018.01)
Moody's	Baa3(2019.02)	Ba1 (2018.01)
Fitch	BBB(2019.08)	BBB-(2018.08)

### 신용등급 상향 조정

- 국제신용평가사 Fitch는 2019년 8월 러시아의 신용등급을 투자적격 범위의 최하위 단계인 BBB-에서 BBB로 한 단계 상향 조정하고, 등급 전망을 '안정적'으로 평가함.
- Fitch는 2015년 1월 러시아의 신용등급을 BBB에서 BBB-로 하향 조정한 이후 계속 유지해 왔으나, 2019년 8월 러시아의 거시경제 안정성 유지와 국제유가 변동 등 대외충격에 대한 안정적인 대응 등을 근거로 등급을 상향 조정하였음.
- Moody's는 2019년 2월 러시아의 신용등급을 Ba1에서 투자적격 등급인 Baa3로 상향 조정하였음.

- 2018년 러시아 경제는 국제유가 상승의 영향으로 2015~16년의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나 2.3%의 성장을 기록했으나, 2019년에는 1.1%로 성장률이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됨. 에너지 수출 소득을 통해 경상수지가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2018년 GDP 대비 총외채 비중은 27.4%,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 외채잔액은 14.4%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석유, 가스 등 에너지 부문에 대한 경제의 높은 의존도는 안정적인 경제성장의 장애요인이며, 러시아의 크림 반도 합병 및 우크라이나 동부 분리 지역에 대한 군사 지원 등으로 2014년 이후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 정부 관료, 기업인과 기업들에 대해 시행하고 있는 광범위한 제재 지속이 경제에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푸틴 대통령은 2018년 3월의 대통령 선거에서 높은 득표율로 4기 집권에 성공하였으나, 이후 연금개혁과 2019년의 지방의회 선거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발생하며 지지율이 하락하였음.
- 크림 반도 합병으로 비롯된 서방의 제재가 지속되어 미국, 영국 등과 갈등관계를 지속하고 있는 반면, 중국이나 터키, 인도 등 비서방 국가들과는 경제, 군사 등의 부문에서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음.